

김윤덕 장관, 일본 국토교통대신과 한-일 국토교통 협력 확대 논의

- 국토·교통 분야 협력회의 재개하여 실질적 협력과제를 발굴
- 자율주행·AI 시티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 협력 과제 발굴·교류 중점 확대

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일 일본 도쿄 국토교통성에서 가네코 야스시(金子 恭之) 국토교통대신을 만나 한-일 양국 간 국토·교통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이번 면담은 최근 한-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, 국토·교통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김 장관은 면담에서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·고령화, 지역 불균형, 기후 위기 등 구조적 과제를 언급하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·교통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○ 이를 위해, 김 장관은 도시·교통·항공·도로·자동차·철도 등 9개 분야* 협력 회의의 재개와 정례적 개최를 제안하며, 양국 간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 구축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.

* 국토계획·토지, 주택, 측지·지도, 도시개발, 교통, 자동차 안전, 항공, 도로, 철도

○ 특히,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주행, AI 시티 등 국토·교통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기술 개발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“양국의 장점을 살려 미래 지향적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

□ 양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, 협력회의 재개 및 지속 교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.

- 김 장관은 8월 31일에는 일본의 자율주행·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, 모빌리티 관련 일본의 규제·실증 제도와 지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고,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.
- 9월 1일에는 자율주행·친환경 모빌리티 거점 도시인 ‘미나토미라이21’에 방문하여 자율주행 실증 방안 등에 대한 요코하마시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고, 현대자동차 법인 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등 현지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.
- 김 장관은 “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 정상의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협력회의로 연결해 나갈 예정”이라면서,
 - “한국과 일본은 국토·교통 분야에서 다양한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,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력회의를 재개하고 미래 모빌리티, AI 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용선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정연준 (044-201-3850)
	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	책임자	주무관	고영훈 (044-201-3853)
			과 장	임월시 (044-201-3847)
		담당자	주무관	한승완 (044-201-3719)

